

수사 선상 오른 광주·전남 단체장들...추석 전 운명 갈린다

담양·함평군수 등 7~8명 선거법 위반·뇌물·성범죄 등 수사 총력 경찰, 강진군수 검찰 송치 등 수사 '속도'...9월까지 마무리 방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민선 8기 단체장들의 운명이 이르면 추석 연휴 전 갈릴 전망이다.

경찰이 검찰 수사 일정 등을 감안해 6·1지방선거 사건 공소시효 만료 일(12월 1일)에 앞서 추석 이전에 사건 송치 및 불송치 여부를 결론짓겠다는 목표 아래 막판 총력 수사에 돌입하면서다. 선거법이 아닌 뇌물 수수·성범죄 등 각종 불법 혐의로 대해서도 경찰은 늦어도 9월 안으로 사건을 큰 틀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기류다. 불필요하게 사건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게 경찰 지휘부 판단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올 하반기 수사 역량을 전세사기 등 7대 악성사기 범죄 근절에 결집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선거범죄 등 각종 불법 혐의로 민선 8기 단체장 가운데 7명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경찰의 수사가 단체장 턱밑까지 올라간 사례도 있다.

◇강진형 강진군수 송치...속대 내 선거범죄 수사= 2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2대는 지난 26일 강진형 강진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강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10여명에 음식 대접 등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고, 일부 혐의가 확인돼 최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넘겨졌다. 다만 강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청 반부패수사 2대는 김철우 보성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정황도 잡고 수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는데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강중만 영광군수의 선거법 위반 수사의 경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이어지고 있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청년단체 행사에 참석해 13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도 담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 역시 사건을 9월 초까지 검찰에 송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족이 아닌 주민에게 조의금 봉투를 전달하고, 주민 3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식사를 대접받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에 응한 8명에게 변호인을 대신 선임해주고 변호사비용을 대신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김순호 구례군수는 최근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2대는 김 군수가 전직 경찰서장이 구입한 토지 주변에 마을 안길 정비공사 명목으로 특혜성 석축 공사를 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군청 과정이 최종 결재권자로 확인된 데다 결재 과정에서 김 군수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뇌물수수 및 성범죄 연루 단체장 수사도 9월 중 기각=전남청 반부패수사 1대는 이상의 함평군수

수와 그의 부인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이어가는 중이다. 이 군수는 함평 하수관로 관급공사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양복(5벌)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고, 이 군수 부인의 경우 함평생태공원 조성 관련 업체로부터 지난 5월 '뇌물 3000만원 소풍백'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군수 혐의 관련해서 양복업자 등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군수 측은 "양복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대금 지급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군수 부인에 대해선 업체 측 정박을 받고 뇌물을 전달했다는 인사와 부인에 대해 지난달 대질신문을 진행하는 등 혐의 입증에 위한 절차를 대부분 소화하고 이르면 추석 전 송치하기로 기각을 잡았다. 양측은 돈을 주고받았다는 데엔 입장이 일치하나, 군수 부인 측은 "선거에 이용될 것 같고 문제가 될 것 같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돌려주지 않았다"며 맞서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성범죄 관련 혐의로 광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김이강 광주시 서구청장 사건의 경우 9

월 말까지 절차대로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가린다는 계획이지만 사건의 특수성상 10월까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6·1지방선거 직전 '5년 전 선출된 사건'에 휘말린 박홍을 목포시장의 경우 전남 경찰의 수사를 거쳐 사건이 지난달 말 광주지검으로 넘어간 상태다. 2017년 나주의 한 식당 앞에서 불거진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박 시장은 고소인 측 요구를 받아 출석한 대질신문에서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수사를 진행한 전남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일단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공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현재 박 시장 관련 사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산 무안군수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으나 지역 내 농공단체의 한 임주업체와 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고소장에 따른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간부 공무원 2명을 거쳐 김 군수 캠프 측에 뒀던 8000만원이 흘러간 정황을 확인하는 등 군수 턱밑까지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용검사일 2년 지나기 전 하자 보수 요청 2년 지나 소송했다라도 건설사 책임 인정”

법원 “8억여원 배상” 판결

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 도장·타일·주방기구 공사 등 공동주택관리법상 '2년 차 하자'에 대해 보수를 요청했다면, 관련 소송은 2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했다라도 건설사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3부(부장판사 임대현)는 광주시 북구 용봉동 아델리움인비엔날레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상대로 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입주자대표회의(원고)는 아파트 공용 및 전유부분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다며, 하자보수에 갈음해 시공사와 분양사 등이 공동해 모두 15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감정인 감정서를 거쳐 조사한 결과,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 데는 원고 청구액보다 5억원이 적은 10억8000만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판단했다.

정점은 2년 차 하자까지 보수책임을 지느냐였

다. 시공사 등 피고 측은 이 가운데 2년 차 하자의 경우 제척기간이 지나 하자보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사용검사일인 7월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2020년 2월 소를 제기해 2년 차 하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도장·타일·도배·가전제품·주방기구 공사 등에 대한 하자도 금액으로 치면 1억5400만원에 해당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용검사일로부터 5개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입주자들이 시공사 등에 구체적 인 항목을 명시해 보수를 요청했고, 대책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제척기간 이내에 포괄적인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용승인일로부터 하자 감정이 종료된 2021년 3월까지 3년 이상이 지나면서 자연 발생적인 노후 현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입주자들의 사용 및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시공사 등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해야 하므로 8억 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청소차 연료 빼돌려 본인 차에 주유한 미화원들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둘 고소

청소차에 넣을 연료를 빼돌려 본인의 차에 주유한 환경미화원 2명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광주광역시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시설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A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은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24일 접수한 것으로 폐기물 수거 차량을 운전하는 A씨 등이 법인카드를 결재한 연료를 개인차에 주유했다는 혐의를 담고 있다.

공단은 지난달 중순께 차고지에서 차량이 출차하지 않았음에도 주유 전표가 접수된 점을 이상하

게 여겨 자체 조사에 나섰다.

A씨는 차고지에서 화물차를 몰고 나가 8개의 기름통에 총 100 l의 연료를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조사 결과 A씨는 민원·서무 업무를 보는 B씨와 결탁해 주유 전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올해만 수십 차례에 걸쳐 수 백만 원 상당의 연료를 빼돌린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A씨는 공단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측은 직원 고소는 노조 측이 징계완화 등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2개월 가까이 사 추과 맞서 집회를 열고 있는 와중에 이뤄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광주시 북구가 29일 분야별 민간자문위원회와 함께 북구 지역 다중이용시설에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안전점검을 하고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벌쏘임 주의보

전남 8월에만 2명 숨져

8월 들어서 전남에서만 2명이 벌에 쏘여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들 말 추석을 앞두고 벌초에 나섰다 벌을 당한 것으로 조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토요일인 지난 27일 낮 12시 45분께 진도군 조도면 야산에서 벌초하던 70대 여성 A씨와 조카인 50대 남성 B씨 등 2명이 벌에 쏘였다.

A씨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완도군에 한 야산에서 50대가 벌초 중 벌 쏘임 사고로 숨졌다. 광주시와 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 전남에서 38건, 광주에서 33건의 벌 쏘임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8일 오전 11시10분께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의 야산에서 벌초를 하던 50대 남성이 머리와 왼쪽 손가락을 벌에 쏘였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께 영광군 법성면 상당리에서 벌초하던 주민도 벌에 쏘여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벌 쏘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벌초 전 산소 주변 벌집이 있는지를 잘 살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밝은색 옷과 모자를 착용하고, 탄산이나 달콤한 음료 등을 소지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소방관계자는 “혹시 벌집을 건드려 벌이 공격하면 자세를 낮추고 벌집에서 20m 정도를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한다”면서 “벌 쏘임에 의한 사망은 80% 정도가 쏘인 뒤 1시간 이내에 일어나므로 최대한 빨리 119에 신고한 뒤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개>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2타경 514	1	순천시 해룡면 기적의도시관리95, 101동 10층 1006호 [유미아파트] 49.77㎡	아파트	91,000,000 91,000,000	
2022타경 50601	1	여수시 좌수영로682-34, 107동 10층 1003호 [별계동, 로얄골드빌] 84.754㎡	아파트	227,000,000 227,000,000	
2022타경 50717	1	광양시 광장로70, 211동 1층 102호 [중동, 상영2차아파트] 59.79㎡	아파트	79,000,000 79,000,000	
[대지/임야/전답]					
2021타경 7099	1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신2 55432㎡ [광희신 9224/60066지분전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구분지상권결정기 있음]	임야	35,983,074 35,983,074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1회 제한
2021타경 57742	5	고흥군 도덕면 오마리 1542 7140㎡ [연고미상 산본묘소제, 공유자신선수 1/2지분전부]	임야	11,781,000 11,781,000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 제한
2022타경 101	1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 177-1 2727㎡	답	280,881,000 280,881,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2타경 50663	1	광양시 도이동 산33-33 331㎡	임야	42,699,000 42,699,000	
[자동차, 중기]					
2022타경 50168	1	사용본거지:순천시 해룡면 매안4길 32 동 2동 16번호:전남70자3170 차량:레스타 연식:2016	자동차	27,000,000 27,000,000	본관:순천시해룡면복성길3(복성리469-1), 이주자:동차매상사[061-743-2227]
2022타경 53266	1	사용본거지:부산전구 양성로8번길 16 [법정동] 등록번호:69하2501 차량:푸조508 2, 0하D 연식:2014	자동차	7,000,000 7,000,000	본관:순천시해룡면복성길3, 이주자:동차매상사[061-743-2227]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기타]						
2021타경 57742	1	고흥군 도양읍 관리 148 1117㎡ [연고미상 분묘소제]	전	26,469,800 26,469,800	공유자신선수1/2 지분전부, 일괄매각,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목록13, 4, 7-9]	
		동소 1246-1 136㎡	대			
		동소 1275-1 469㎡	답			
		동소 1275-2 208㎡	답			
		동소 1315-2 225㎡	전			
	2	동소 1821 674㎡	전			
		동소 1926 796㎡	전			
		고흥군 도양읍 청계리 699-36 10㎡	도로			
		고흥군 도양읍 관리 1289 146㎡	제시외계사 7㎡	전	30,800,740 30,800,740	공유자신선수 1/2 지분전부, 일괄매각, 제시외계사포함,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목록5, 수목포함]
		고흥군 도양읍 관리상하길 12-4 [제1동] 단층80.11㎡ 제시외 보일리실 0.6㎡	단독주택			
3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1042-1 496㎡	묘지	4,740,500 4,740,500	공유자신선수 1/2 지분전부, 일괄매각,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 제한		
	동소 1042-2 3㎡	묘지				
4	고흥군 도덕면 신양리 19 947㎡	전	39,892,100 39,892,100	공유자신선수 1/2 지분전부, 일괄매각,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목록13, 14, 17-20]제출시 보증금물수], 수목포함		
	동소 34 523㎡	도로				
	동소 85-3 40㎡	도로				
	동소 85-4 33㎡	전				
	동소 197 807㎡	전				
2022타경 2091	1	선적항:고흥군 도양읍 선적의종류와명칭:선적선도영2호 어선번호:1608015-6467705 선적:FRP 총톤수:5.46톤 기관의종류와수:선박용디젤기관628,000마력1대 추진기종류와수:니선원체식추진기1기 전수년월일:2016년8월22일	선박	205,083,800 205,083,800	본관:여수시국동항남와이제이마린[062-603-1013], 어업허가권포함	

● 공고된 부동산의 연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거래수익신고인 매각대상기업투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할 때에 대한 면제신청을 받은 후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패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매각기일: 2022. 9. 13. [화] 10:00
- 매각장소: 2022. 9. 20. [화] 16:00
- 매각방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08호경매명부
- 매각방법

- 입찰보증에 비추어 기밀유지요청에 서면보증, 입찰가격, 보증금액, 보증금일 등 기밀하고 싶으면 보증금을 함께 입찰보증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 [10리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관련 법령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 중 하나거나 지급보증서(보증금)를 제출한 문서(입찰 보증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 입찰이 공표된 후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표일로부터 매각의 지분을 일괄하게 사하여야 한다.
- 입찰보증의 투입이 완료되면 관비로 개설된 계좌에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거래수익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뿐만 아니라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 최고거래수익신고와 재산거래수익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된다.
-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 최고와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에 대하여 매각결정일에 매각허가 여부,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각결정일자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매각결정일에는 해당 매각대상 부동산의 1개월 이내로 매각을 지칭한다.
- 지정된 매각결정일자 이후 매각대금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허가 취소된다. 다만, 매각결정일 지정된 날의 3일만까지 지정된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분지, 비용을 납부하면 매각대금부서서 유효하며, 따라서 매각허가 취소하지 아니한다.
- 소유권이전 및 인도
-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제1회) 기일일 때에 매각대상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매매계약 체결한 후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 서류를 전부 제출하고, 국민주택특별관리지역을 기한 신청서를 받은 후 매각대상 부동산이 위 등기를 속하여 준다.
-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행위는 부동산 매각이 매수인에게 부동산 인도에 대해 주지 아니하는 법에 인도행위를 신청할 수 있다.
- 주의사항
- 매각의 주체 또는 참가인원에 최소한의 제한 등이 설정된 납부보다 먼저 주권인정신청을 하고 주지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당 등 부동산을 가진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입찰인원의 열람에 제한이 없이 매각대상 부동산의 매각대상 부동산을 방문하여 입찰대상 부동산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대상 부동산의 열람에 제한이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결정일에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입찰보증에 납고된 때에는 입찰보증의 기각 및 입찰보증의 반환에 필요한 서류를 매각대상 부동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입찰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보증금 전부를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결과 확정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소유권이전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거래수익신고인으로서 매각대상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단, 토지이양제(특정인사) 등 예외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 소항하는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다.
- 공고된 물건은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소되거나 집행이 취소, 경지변 경우, 또는 매각이유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된다.
- 신청한 후의 변경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출찰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무리하면 게시한 공고나 법원에 반하여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http://www.courtaction.go.kr [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열람 가능정보 제공으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 가능한 열람이므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특히 그 열람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절차가 신청인이 원고, 청구금액이 원고에 승계된다는 취지를 할 수 없습니다. 관공는 열람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법원에 매각대상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2. 8.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신영민